

만공 스님 홍가사 수덕사로 '귀향'

봉서사서 영산대제

‘참회 수행 회향’ 종단 운영 키워드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 5월 26일 취임

지난 4월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혜정 정사가 종단 운영의 키워드로 참회와 수행, 회향을 제시했다.

5월 26일 취임을 앞둔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11일 서울 하늘곡동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 이원, 심인, 삼밀수행으로 이어지는 진각성종 회당 대중사의 지혜를 참회와 수행, 회향의 문화로 대중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

회향의 바탕이 되는 참회는 창종시기 참회원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혜정 통리원장은 "참회는 연기 인과의 자성적 실천을 뜻한다"며 "불교적 예(禮)의 가치를 대중화하는 공존과 화합, 상생문화의 사회적 시작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수행은 삼밀의 실천이다. '내 것'이라는 정신과 물질 나누는 희사(喜捨)와 신(身) 구(口) 의(意)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삼밀(三密)의 실천법을 통해 자주 자립과 통일 의 염원하게 된다.

혜정 신임 원장은 "수행을 통해 수행과 삶이 하나된 종단 정체성, 수행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향은 회사 정신의 사회화다.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바람 없는 자비실천이 회향"이라며 "진각복지 실천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생생히 이웃과 함께하는 종단문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회와 수행, 회향의 중점 키워

드는 수행과 포교, 복지 등 분야별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혜정 원장은 종단 수행 체계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종단 내 교법을 정비해 각 교구청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의 대중화도 혜정 통리원장이 중점적으로 챙기는 부분이다.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수행자의 근기와 환경을 감안해 수행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즐기는 수행법의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나눔과 회향의 실천을 위한 복지는 △지역복지 △문화복지 △민족복지의 3개 중점영역으로 나눠 통합적인 불교복지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복지재단의 업무를 세분화해 열린 복지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복안도 소개했다.

혜정 통리원장은 "7-8월 경 21세기형 해민서 기능의 '진각해민서'를 개원하게 된다"며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진각해민서가 개원하면 한국불교사

회복지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강조했다.

포교 강화를 위해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가칭)교화전법위원회를 설치해 포교기법을 연구·체계화하고 전국 심인당의 홍보까지 힘을 예정이다.

또 2010년 완공 예정인 진각문화전승원에서는 회당 대중사의 유물전시실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수행처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혜정 통리원장은 "종단의 혁신과 정책에 대한 고민은 종단 발전의 도모와 새로운 비전을 담는 과정"이라며 "종단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체도를 구축하고, 신교도의 수행과 문화를 공유·확장해 교화와 포교로 사회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혜정 신임 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공심(公心)이다.

"종단의 혁신은 개인적인 원(願)을 합의를 통해 집단의 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개인적인 원들은 가장 마지막에 더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중 이웃사회와 함께하는 참회와 수행, 그리고 회향의 문화를 이룰 분별 없는 상생의 삶을 이끌겠습니다."

한편, 제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의 취임법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고내 회당기념관에서 봉행된다. (02)913-0751 조동섭 기자

태고종 백운 스님 기증



기증자인 백운 스님(오른쪽)과 설정 스님이 만공 스님이 생전에 수한 17조 홍가사를 펼쳐보고 있다.

근현대 한국 선종의 거인 만공(滿空, 1871~1946) 대선사가 수하던 가사가 덕승총림 수덕사로 돌아왔다.

하얀거결제 다음 날인 5월 10일,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만공 스님의 가사 기증식이 열렸다.

기증자인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원장 백운 스님(춘천 석왕사 주지)은 은사인 동산(東山, 1914~2009) 스님으로부터 1995년 만공 스님의 홍가사를 받아 소장해오다 이날 수덕사에 가사를 전달했다.

기증된 가사는 일월광과 사천왕이 박음질된 17조 홍가사로, 만공 스님으로부터 받은 동산 스님이 그 상좌인 백운 스님에 전한 것이다. 동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 보월 스님의 전법제자로 덕승산 정혜사 주지소임을 볼 때 만공 스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으며 이때 가사를 전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관장 정암 스님은 일월광을 새긴 금빛 연경사와 가사 재질로 볼 때 1930~194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백운 스님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한 만공 스님의 가사가 덕승산

으로 돌아가 광대무변한 선종을 드날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동산 스님의 49재를 앞두고 이렇게 기증증식을 갖게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만공 선사의 가사가 덕승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본귀환처(本歸還處)'와 같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수덕사 주지 용산 스님도 "고이 간직하던 만공 스님의 가사를 수덕사로 돌려준 의미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증된 가사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인수했으며, 전시설비를 마치는대로 관람객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근역성보관에는 수하지는 않고 간직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만공 스님의 25조 금란가사가 전시돼 있다. 김성우 기자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전북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주지 월해에서 호국삼천불이운, 개금점안과 국가 경제난 극복기원을 위한 영산대제를 봉행한다.

태고종은 이날 서울 성북동 태고사에 있던 삼천불상을 봉서사로 이운하고, 불상에 금칠을 다시해 안치하는 개금 점안식과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기원하는 영산대제를 거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각 사찰 주지 스님, 신도 등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독도, 지난해 통영에 이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의 국토순례 대장정 세번째 기점으로 마련됐다. 태고종은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활발한 국내외 공연을 펼치고 있다. (063)244-3063 김성우 기자

불승종 창종주 설송 스님 입적

5월 17일 현불사서 다비식... 김대중 前 대통령 등 정치인과 인연



故 설송 스님.

"오고 가는 것은 꿈과 같고(乃往過去只在夢) 인생 한 번 오는 것이 꽃 한번 피고 지는 것과 같구나(人生都是如花開) / 내 본분은 본래 스님이 아니니(我本分僧伽) / 돌아갈 곳 어디에도, 중생의 마음속 어디나(歸去何處衆生裏)."

대한불교불승종 창종주인 설송(雪松) 스님이 5월 9일 오후 6시 30분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현불사 설법전에서 입적하며 이러한 열반송을 남겼다. 향년 91세.

'불승종 장례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8시 현불사 자비전에서 영결식을 봉행하고 오전 9시 발인 후 오전 10시에 다비식을 봉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918년 11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에서 태어난 설송 스님은 1963년 설악산에서 입산 수도를 시작했다. 2년 뒤인 1965년 음력 11월 초여섯 수원 일광사에서 <법화경>의 묘법실상(妙法實相)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얻었다고 불승종은 밝혔다.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화경> 28품을 28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묘(妙)의 변화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더 덜어주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므로 이 경을 설하는 것입니다."

설송 스님이 평생 <법화경>의 일승(一乘) 묘법을 설하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늘어나 미국 버지니아주 마야살 구곡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25개 선원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 특히 정치인들이 스님의 법력(法力)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현불사가 결정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문이 계기가 됐다. 김 前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전인 1996년, 태백산 자락의 심심산골에 숨어 있는 현불사를 방문했다. 현재 경내에는 그때의 기록을 적은 '김대중 대통령 방문 비석'이 서있는데, 내용은 '김 前 대통령이 방문하던 날, 보탑에 오색 빛이 발했으며 이는 대통령 탄생을 예지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설송 스님은 이날 방문 이전

부터 김 前 대통령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현불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1983년 창건 이후 이곳을 찾은 정치인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이회창, 이한동, 한화갑, 윤길중, 조성준, 추미애, 권정달, 김중권, 장영철, 최명현씨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이회창씨의 부인 한인옥 여사는 가끔씩 설송 스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태준씨는 총리재임 시절 서울 북악산동자택에서 설송 스님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962년 창종된 불승종의 본찰인 현불사는 요즘도 기도 영험 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다. 불승종 장례위는 "스님 열반을 맞아 일부 언론매체에서 잘못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것은 생전 요란함을 떨치신 종조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선 예언가" 윤운식의 보도를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호명 스님 등

태고종 부·국장 인사

태고종 총무원 부장 및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6일 한국불교진흥원문화선승관 2층 회의실에서 총무조정실장 호명 스님 등 신임 소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한마

음 한뜻으로 종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조정실장 호명 스님(염불사 주지) △재정지원실장 옥산 스님(화엄사 주지) △교류협력실장 혜일 스님(제주 정방사 주지) △교육부장 성오 스님(안성 성은사 주지) △규정부장 정민 스님(전주 승암사 주지) △교무국장 무종 스님 △재무국장 정관 스님 △교육국장 지화 스님 △문화국장 성인 스님 △기획국장 서리 홍창수.

김성우 기자

불교합창단련 곧 결성

한국불교합창단련(회장 지관, 이하 중단련)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중단련 신하 전국불교합창단련 협회 결성이 임박했다. 중단련 등은 5월 21~22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불교합창단장·임원 연수 및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단 개원회 및 불교음악 경의도 진행된다. (02)2011-1772

“도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은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긴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동토)신 알아내는 법
- * 자녀(子)액운 차귀달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성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惡靈)귀신
- * 귀장술(歸藏術)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因緣)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 보는 빙의(憑依)착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 보는 사후(死後)환생 귀신(鬼魂)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墓) 유골의 현재(現)상태 알아내는 법

두 번째 백초 스님의

글·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02) 3667-4446
010-3813-4443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증